

#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주) 부설 평택연구소

## 인간·자연·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작물과학 개발의 중심

97년 5월 신설 이전, 코니도·실바코·바스타 등 획기적 제품 줄이어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기술력으로 고객과 함께 미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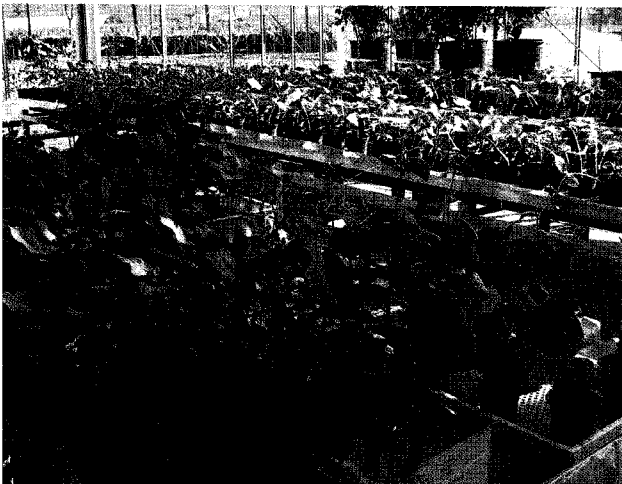
농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농약 개발 및 안전성 홍보의 네 번째 장(場). 지난해 말 용인 연구소의 주요 시설 이전 및 연구소의 혁신적 리모델링 작업을 완료한 바로 그 곳,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선진 연구개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원들의 작업안전 및 환경 친화형 연구시설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춘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주) 부설 평택연구소(소장 田炳喆)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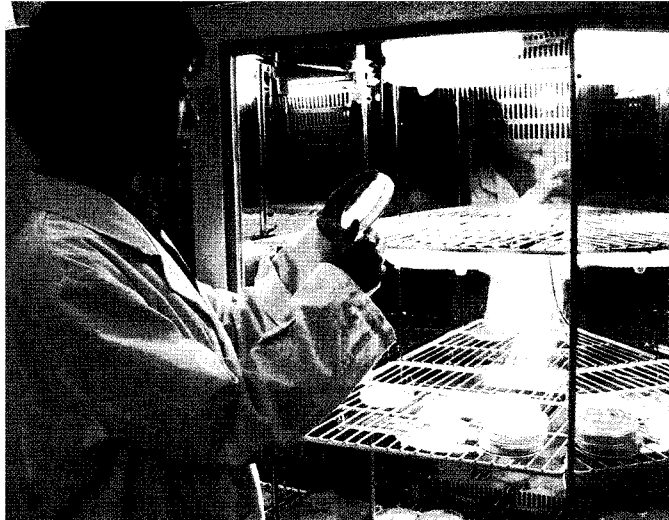
이번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지난 2004년 초부터 평택 중앙연구소와 용인연구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통합과 바이엘 QHSE(품질 보건

환경 안전) 기준에 적합한 연구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지난 2002년 바이엘의 아베티스 인수합병 발표 이후, 2004년 1월 용인 연구소 연구인력의 평택연구소 재배치 및 기능 통합을 위한 1단계 작업에 이어, 2004년 11월 용인연구소 매각 완료 시점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던 2단계 통합 및 혁신작업의 일환으로 2004년 10월부터 특별 예산을 투입,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이다.

### ‘코니도·실바코·바스타’ 등 널리 알려진 제품 많아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의 기업 이념인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그리고 글로벌 이념인 ‘더 나은 삶을 위한 과학’ 실현을 위하여 앞서가는 글로벌 혁신 기술과 통합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혁신제품을 설계하고 개발, 제품화 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및 환경친화형 연구 개발의 책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田소장은 명실상부한 다국적





기업 연구소 수장으로서는 중용의 입장을 내비치며 이 같이 말하고 인적, 물적, 기술적 우월성은 바이엘의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바이엘 평택 중앙연구소는 1997년 5월, 경기 남부 농업 중심지인 평택시 진위면에 신설, 개소하였다. 1999년 6월에는 ISO 9002 인증을 받았고 2003년 12월에는 ISO 9001로 규격을 변경하였다. 대전 공장은 ISO 4001 인증을 신규로 획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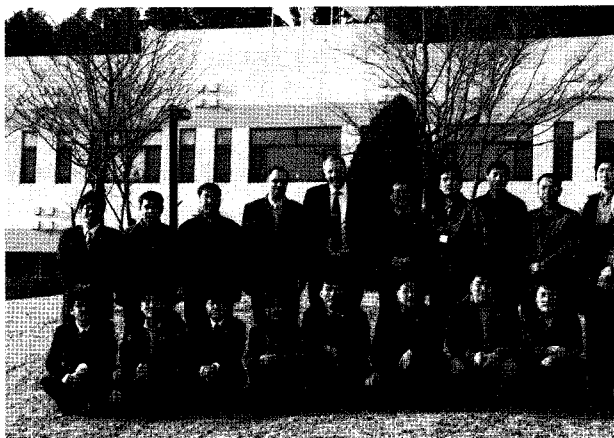
생물연구실, 잔류실, 사무실, 기타 부속건물 등 약 600여명의 건평에다 약 4천평의 시험포장 그리고 잔디밭 정원 등이 5천4백여평에 이르는 등 총 1만평의 규모를 지니고 있다. 살균, 살충, 제초 및 기술보급시험 그룹, 등록 그룹, 잔류 독성 그룹, 연구개발 지원 및 포장관리 그룹 등에서 22명의 연구원들이 국내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인 만큼 그 성과도 적지 않다. 한국 최초의 종자처리 살충제인 '가우초'를 비롯, '기라성' 및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토양처리제 '코니도', 벼물바구미 전문 육묘상자처리제 '칼립소' '리전트', 응애약제인 '시나위', 살균제로는 농민들이 신뢰하는 '실바코', '프린트'가 있고, 제초제로는 논잡초약인 '노난매', '파문' 그리고 비선택성 제초제 '바스타' 등 이미 농업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제품들이 즐비하다.

### '선택·집중' 통한 트렌드 선점

"경제성 있는 시장 및 고객 지향적 신제품(글로벌 프로젝트, 국내 개발 및 파트너십 개발 등) 개발을 통한 '선택 및 집중' 개발 전략 구사와 제품수명 주기 관리를 위한 적용확대 시험 및 신제품 개발, 고객의 편의성 제고 및 제품 안전성 기술과 부가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田소장은 연구원 구비덕목으로 "농업은 종합과학이다. 무엇보다 기술이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농업·농민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깊이 있는 기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농약도 개발할 수 있다"며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선도자 역할을 강조했다.

타 연구소와의 차별화를 묻는 질문에 田소장



평택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 Andrew Orme사장(뒷줄 좌에서 다섯번째), H.Printz 부사장(뒷줄 좌에서 네번째).

